



배포 일시	2023. 1. 18.(수)			
담당 부서	국토교통부	책임자	과 장	우정훈 (044-201-3538)
	건설산업과	담당자	팀 장	홍 철 (044-201-4990)
	한국토지주택공사	책임자	부 장	정환영 (055-922-5254)
	건설안전처	담당자	차 장	정도영 (055-922-5282)
보도일시	배포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			

내, 건설현장 82개 공구 270건 불법행위 확인

- 창원명곡지구 레미콘 운송거부 등 불법행위에 대해 이번 주 고소 예정
- 불법행위 근절 TF 구성, 신고센터 운영, 유형별 민·형사 상 엄정 조치 검토
- 원 장관 “서민 주거안정 책임지는 내가 불법행위 풍토 바로잡는데 적극 나서달라”

□ 한국토지주택공사(사장 이한준, 이하 LH)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지시로 건설현장 내 불법행위를 전수조사한 결과, 전국 82개 공구에서 270건의 불법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.

○ LH 이한준 사장은 이번 전수조사 결과를 17일 UAE 경제사절단 해외순방 중인 원희룡 장관에게 영상회의를 통해 보고했다.

○ 원 장관은 지난 12일 창원 명곡지구에서 개최된 공공기관 CEO 간담회에서 공공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적극적인 민·형사 조치를 당부한 바 있으며,

- LH는 이번 전수조사의 발단이 된 창원 명곡지구의 불법행위 건에 대해 이번 주 중으로 업무방해 강요죄 등으로 경찰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.

□ 한편, 이번 전수조사는 지난 5일부터 13일까지 전국 387개 공구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, 불법행위 14개 유형별 피해 현황을 조사했다.

○ 총 270건의 불법행위 중 △채용강요 51건 △타워크레인 월레비 지급강요 48건 △태업 31건 △전임비 지급강요 31건 등이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, 현장 출입방해나 장비사용 강요도 비교적 높은 수치를 보였다.

-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는 건설근로자의 안전, 일자리 및 생계유지 등에 해를 끼치고 공사 지연으로 인한 건설사의 부담 증가 및 분양가 상승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발생으로 연결될 수 있다.
- 특히,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입주 지연 등 입주예정자들의 주거 안정성이 저해할 우려가 크다.

< 전수조사 결과 및 주요 피해사례 >

□ 불법행위 항목별 피해 조사 건수(270 건)

채용 강요	장비 사용 강요	타워 월레비	강요에 의한 전임비 등	부당 금품요구	태 업	임의 추가 인력투입
51	26	48	31	7	31	10
현장퇴거 명령불응	출입 방해	레미콘		기타		
		집단운송거부	운반비담합	기물파손	주민민원	
11	28	20	3	1	3	

(사례1) OO지구 아파트 건설현장의 경우, 철근콘크리트 하도급사는 건설노조의 채용강요, 타워크레인 월레비 요구, 근로시간 단축 요구 등 불법행위에 대한 손실을 감당하기 어려워 공사를 포기했고, 이로 인해 2개월의 공사 중단이 발생했다. 그러나 노조원의 고용승계, 공사 중단 기간의 휴업수당 지급이 지속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.

(사례2) □□지구 아파트 건설현장에서는 복수의 노조에서 건설장비 사용을 요구하며 현장 출입문을 봉쇄해 15일간 공사가 중단됐다.

□ 이에 따라 LH는 관련 업무를 전담할 TF를 구성하고, 이번 전수조사 결과 및 법률 검토내용을 바탕으로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다.

- 아울러, LH는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해 불법행위에 대한 현장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드러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유형별로 민·형사상 조치를 엄정하게 취할 예정이다.

- 특히, 노조원 채용 및 장비사용 강요, 레미콘 운송거부로 공사가 중단됐던 창원명곡지구와 관련해 이번 주 중으로 고소를 진행하고, 2월 중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제기해 노조의 불법행위에 적극 대응한다.
 - 피해를 입은 업체에 대해서는 설계변경, 공기연장 등 구제방안을 적극 시행하고,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.
- 원희룡 장관은 “건설현장 불법행위와 관련해 공공기관이 형사처벌, 불법이익 환수 및 손해배상 청구 등에 앞장서야 한다” 며
- “서민 주거안정을 맡고 있는 LH가 눈앞의 불법행위를 용인해선 안되며 이번에 건설산업의 풍토를 제대로 마련한다는 책임의식을 갖고 엄정한 조치를 취해달라” 고 주문했다.
- 이에 이한준 LH 사장은 “건설현장의 불법행위는 근로자와 입주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, 결국 국민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” 면서,
- “LH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건설현장 내 불법행위 뿌리를 뽑겠다” 며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의지를 다시 한번 다졌다.

참고

UAE 현지 연결 영상회의 장면

□ 조사개요

- (조사기간) '23. 1. 5(목) ~ '23. 1. 13(금), 9일간
- (조사대상) 387개(주택 233개, 단지 154개) 현장
- (조사내용) LH 현장의 14개 불법행위 항목 및 피해 세부 현황

□ 조사결과

- 유형별 피해 현황(1.16 현재, LH 82개 현장 270건 접수)
* 82개 피해 현장 총 270건 중 고용부·경찰 신고·고발은 11건

채용강요	장비사용 강요	타워 월레비	전임비 등 강요	부당금품 요구	태업	임의추가 인력투입
51	26	48	31	7	31	10
현장퇴거 명령불응	출입방해	레미콘			기타	
		집단운송거부	계약강요	운반비 담합	기물파손	주민민원

